

2015 광주평화연극제



원주 극단 '씨어터 컴퍼니 웃끼'의 '20시59분'



서울 극단 '청우'의 '내 이름은 강'

정의, 역사 속에서 찾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광주평화연극제는 평화·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정체성과 가장 맞닿아 있는 행사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하는 2015 광주평화연극제가 8일부터 18일(오후 7시30분)까지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올해의 주제는 '정의, 역사 속에서 찾다'로 정했다. 경연작과 일본 작품을 포함한 공식 초청작 등 모두 9편이 공연된다.

올해는 잠시 중단했던 '평화 연극상'을 부활한다. 일반 관객심사단 30여명과 (50%) 협회(50%)가 대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연작은 모두 5편이다. 연극문화공동체 DIC(광주)의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9일)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를 각색한 작품으로 나약한 인간의 갈등과 헛된 욕망을 맥베스라는 인물을 통해 들여다 본다. 정문희씨가 각색과 연출을 맡았으며 송민중·문진화·김수원씨 등이 출연한다. 원주 극단 '씨어터 컴퍼니 웃끼'의 '20시59분'(10일)은 일본 위안부로 끌려간 한 소녀가 겪어온 시간들을 통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들여다보며 할머니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작품이다.

군인들이 줄을 서던 '20시 59분'은 1942년 열 여섯 소녀에게는 70년 세월이 지나도록 잊히지 않는 시간이다. 80이 넘는 노

■ 2015 광주평화연극제 일정

| 일정 | 극단 | 공연 (문화회관 소 공연장) |
|--------------|-----------------|-----------------------|
| 8일 오후 7시30분 | 극단 청우 | 개막공연 '내 이름은 강' |
| 9일 " | 연극문화공동체DIC(광주) | 맥베스 그는 잠을 죽였다 |
| 10일 " | 극단 웃끼(원주) | 20시59분 |
| 11일 " | 극단 불의 전자(서울) | 행성의 진화 초기 단계, 불확실한 미래 |
| 12일 " | 극단 시민(광주) | 가슴을 가린 꽃 |
| 13일 " | 종이로 만든 배(서울) | 내 아이에게 |
| 14일 " | 아트컴퍼니원(광주) | 어서오세요 우리 집에 |
| 16일 " | 일본 쓰루마키 악단 | 죽고 싶은 놈들 |
| 17일 오후 4시 | " | " |
| 18일 오후 7시30분 | 심리극단 엔카운터·극단 연인 | Normosis |

인 앞에 한 남자가 다가오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최규창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김미나·최규창·이창호씨 등이 출연한다.

서울 극단 '불의 전자'의 '행성의 진화 초기 단계, 불확실한 미래'(11일)는 각각의 인물이 갖고 있는 신념과 그 신념의 차이가 초래하는 오해를 통해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들여다본 작품이다. 2011년을 배경으로 국정원과 UFO를 믿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벌어진다. 변영진 작·연출로 윤기환·고경호·지명진씨 등이 출연한다.

광주 극단 시민의 '가슴을 가린 꽃'(12일)은 김민호 동시대 교수가 희곡을 쓰고 연출한 작품이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마라톤 선수 남승룡과 손기정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마라톤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남승룡이 평생 라이벌이자 친구인 손기정을 만나게 되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장도영·김현규·이한별씨 등이 출연한다.

서울 극단 '종이로 만든 배'의 '내 아이에게'(13일)는 세월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도 팽목항으로 달려간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 세월호 사건을 들여다본다.

개막작은 서울 극단 '청우'의 '내 이름은 강'(8일 오후 7시30분)이다. '인류 최초의 키스' '웃어라 무덤아' '주인이 오셨

다' 등으로 찬사를 받아온 고연옥 작가, 김광보 연출 콤비의 작품이다.

'내 이름은 강'은 제주도 신화 '원전강 본풀이'를 토대로 의미를 잃어버린 채 '오늘'만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더 이상 웃어주는 이가 없는 광대,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는 역무원, 열매가 열리지 않는 발을 끝없이 일구는 농부 등이 등장한다.

해의 초청 공연작은 일본 쓰루마키 악단의 '죽고 싶은 놈들'(16일 오후 7시30분·17일 오후 4시)이다. '일본의 셰익스피어'로 불리는 치카마츠 몬자에몬의 작품의 주요 부분을 뽑아내 극단 대표 쓰루마키 게이타가 각색한 코미디 작품으로 분처와 애인의 유산 상속 싸움을 유쾌하게 그리고 있다. '삿포로극장제 2006' 대상수상작이다.

아트컴퍼니 원의 '어서오세요, 우리 집에'(14일)는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 성주신 등 가신(家神)들과 그 집을 유산으로 받은 한 남자의 우리집 정탈기를 통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다. 최진영씨가 극본을 썼고 원광연씨가 연출을 맡았다. 최진영·박선주·한종신씨 등이 출연한다.

그밖에 심리극단 엔카운터와 극단 연인은 심리극 'Normosis'(18일)를 공연한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명창 김향순 심청가 완창

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판소리 완창은 소리꾼이 라면 누구나 꿈꾸는 무대다. 고수의 복장 단에만 의존해 몇 시간씩 소리를 하는 데는 남다른 내공이 필요하다.

명창 김향순씨는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완창 무대를 선보였다. '심청가'를 가장 많이 공연했고, '흥보가'와 '수궁가'도 완창했다. 김씨가 다시 한번 '심청가' 완창 무대를 갖는다. 8일 오후 7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전석 초대 공연.

'심청가' 완창 무대는 4시간 30분이 걸리는 대장정이다. 지난 4월 '심청가'의 전반부를 선보인 데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심청이 탄 배가 임당수를 향해 가는 대목을 그린 '범피중류'부터 시작해 '심청이 물에 뛰어드는 대목', '황성 도착하는 대목', '심청이 황후가 되어 아버지를 기다리는 대목', '심봉사 눈뜨는 대목'까지 들려준다.

김씨는 "판소리 '심청가'는 효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관람하면 좋을 것 같아 공연 날 일자를 어버이날로 잡았다"며 "사막한 세상살이에서 부모 자식간의 정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청가'는 판소리 다섯 바탕 중 가장 애절한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김씨가 선보이는 강산제 '심청가'는 웅장



한 동편제에 비해 구슬프고 어린 소리가 특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김씨는 공대일, 한애순, 성장순 선생을 사사했으며 (사)화순국악진흥회 이사장, 전남도립국악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광주국악대제전 명창부에서 대통령상 수상했다. 나연주씨가 사회를 맡은 이번 공연의 고수는 전국고수대회 명고부 대통령상 수상자인 추정남씨다. 그 밖에 홍송화(무용·전주대사습놀이 장원), 김민지(아쟁), 김명진(대금)씨 등이 함께 공연한다. 문의 010-3623-05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백련사, 8국사 다례문화제

9~23일...음악회·전시회도

백련사(주지 일담)는 9~23일 고려시대 불교개혁운동인 '백련결사운동'을 주도했던 8명 국사(國師)의 넋을 기리기 위한 8국사(八國師) 다례문화제를 연다. 8국사는 백련결사 운동이 시작된 1232년부터 120여년간 백련사가 배출한 여덟 명의 국사로 원묘국사, 정명국사, 원환국사, 진정국사, 원조국사, 원해국사, 진강국사, 목암국사 등이다.

9일 대웅보전에서 위패를 모시고 다례제를 진행하고, 승탑이 있는 동백숲에서는 음악회가 열린다. 이 음악회에는 가수 황규영·이정봉씨가 출연해 각각 '나는 문제없어'와 '어떤가요' '그녀를 부탁해'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등을 들려준다. 또 만해성씨가 동편제 판소리를 들려준다. 이 동백숲(1만㎡)은 천연기념물 제151호로 지정된 국내 대표 동백 군락지다.

오는 23일에는 미국 재즈 피아니스트 론 브라운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강진 일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 밖에 오는 8월 30일까지 백련사와 강진 일대의 풍경을 담은 유영 작가들의 전시회도 곁들인다. 윤석남, 서용선, 이종구, 김억, 윤남용, 박재동, 홍산용 등 30여명의 작가가 백련사 일대에서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백련사는 통일신라시대 말기인 839년에 창건된 고찰이다. 만덕산(408m)에 있어 만덕사(萬德寺)라고도 불린다. 왕위를 동생 세종에게 양보하고 전국을 유럽한 효령대군이 8년 동안 기거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일대 풍광이 빼어나다. 일담 스님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불교를 이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사"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광주연극협회 주최, 8~1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위안부 소녀 이야기 '20시 59분' 등 경연작 5편·초청작 4편 공연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차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품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오피스텔부지적합)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
- 서구 세하동 생산녹지 답 2,400㎡ 매 5.7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월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월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월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해남바다
접한 펜션주택지

- ▶주소: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02-1
- ▶면적: 12,102평방미터 (500평분할가능)
- ▶매가: 평당 15만원
- ▶지역: 계획관리지역

바다와 갯벌 체험하고 백사장과 송림숲이 좋은 환상땅

010-5267-7225

해남 귀농
최고의 펜션

- ▶연소득: 5천만원 (장부확인가능)
- ▶장소: 해남읍서 대홍사 가는길목
- ▶면적: 1838평방미터 (대+전)
- ▶건평: 주택4동+캠핑카
- ▶매가: 4억 5천 (절충가능)

010-5267-7225

제주도 환상의 땅
☞ 투자 최고의 돈버는 땅 ☞

- ▶주소: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면적: 4100평방미터 (계획관리)
- ▶매가: 1억3천만원
- ▶주소: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면적: 4509평방미터
- ▶매가: 6억5천만원

010-4870-4800

제주땅 삽니다

수익형 고층 아파트 특별분양 (한정 세대)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아파트 명가 호반건설)

특별분양가 총 5,350 만원

1. 풀옵션 올리모델링 42㎡, 전용비율 70% 이상
2. 수익율 15~16% (전국 최고 수익율, 관리비 저렴)
3. 나주혁신도시 근거리 위치 / 동시대 정문 앞
4. 미래가치 최고, 신세계 전남, 광주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지 입구
5. 오피스텔의 반값 / 2배의 가치와 만족도
6. 선착순 동호수 지정, 19세대 한정

Tip

- ✓ 전세 3,900만 ~ 4,200만
- ✓ 월세 가능, 486세대(대단지), 주차 완비

스타공인중개사 (대표: 정재호) ☎ 010-3419-9100